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Institute for Global Korean Studies

K학술확산연구소사업단



신화와 설화로 보는 한국고대문화의 원형

박미선 교수





전체 목차

01	강의 개요		04
	• 강의 목표 • 주요 학습지점 • 강의 방법과 일정		
02	강의 목차		08
03	강의 교안		11
04	기타 학습요소		36
05	강의 전문(국문)		42

강의 개요

강의 목표

- 이 강좌는 한반도 고대 역사의 시작점부터 일련의 전개 과정을 신화와 설화, 사상과 국가 성장, 풍속과 놀이를 주제로 다룬다.
- 이 강좌를 통해 학습자는
 - 한반도 고대 역사의 출발점을 인식할 수 있다.
 - 고대 한반도의 국가 등장과 성립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한반도 고대 역사의 특징과 고유한 내용을 탐색할 수 있다.

주요 학습지점

본 강좌는 한반도 고대 역사의 출발점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역사와 연결할 수 있는 보편인문학적 소통을 지향하는 역사 강좌로 기획되었다. 역사 연구는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작업으로 한 나라의 출발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말하는 신화, 설화와 유사한 연계성은 충분히 즐거운 이야기이다.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학습자는 한반도 역사의 출발점에 대하여, 아울러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해해볼 수 있다. 또한 교수자의 강의 내용과 강좌가 제공하는 비영상 학습 요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학습할 수 있다.

- (1) 한반도 고대 단군신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가?
- (2) 고대국가의 성격과 불교문화에 대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
- (3) 고대인의 삶과 생활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른 나라와의 비교사적 성찰이 가능한가?

강의 방법과 일정

본 강좌는 총 11주차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자의 강의는 10주 동안 진행되며, 11주차에 총괄평가를 실시한다. 각 주의 강의는 주제별로 4~5차시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자가 강의내용을 확인하는 퀴즈와 강의 내용을 보충하는 비영상 학습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는 매주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학습활동을 마쳐야 해당 주의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수자는 주차별로 한반도 고대 역사의 다양한 내용을 신화, 설화, 불교 사상, 풍속과 놀이를 주제로 다룬다.



강의 목차

01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1	한국의 창세신화
		2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3	단군신화의 역사성과 의미
		4	단군신화의 계승과 영향
02	고대국가가 등장하다: 삼국의 건국신화	1	주몽, 고구려를 건국하다
		2	온조, 백제를 세우다
		3	혁거세, 신라를 세우다
		4	가야의 건국신화
03	고대 왕, 신이한 능력을 지니다	1	제사장에서 왕으로
		2	출생의 비밀을 가진 왕
		3	신체의 비밀을 가진 왕
		4	신라 여왕의 등장
04	외래사상, 불교를 받아들이다	1	불교의 탄생과 전파
		2	한국 고대사회의 불교 수용
		3	신라 불교 수용을 둘러싼 갈등(1)
		4	신라 불교 수용을 둘러싼 갈등(2)
		5	한국 고대 왕들이 불교를 공인한 까닭
05	부처의 나라를 만들다	1	불교식 왕명
		2	황룡사와 신라 왕실
		3	백제 무왕의 익산 미륵사 창건
		4	부처와 인연 만들기



강의 목차

06	고대인의 사랑과 혼인	1	왕을 선택한 왕비
		2	왕의 명령으로 맺어진 사랑
		3	여왕을 짝사랑한 지귀
		4	호랑이와 인간의 사랑
		5	신의를 지킨 사랑
07	부모에 대한 사랑, 효(孝)	1	살을 베어 부모를 봉양하다
		2	부모 봉양을 위해 자식을 묻으려 하다
		3	부모의 뜻을 헤아리다
		4	현세와 전세의 부모를 위하여
		5	출가도 효
08	충(忠), 고대국가의 성장을 이끌다	1	충신의 아이콘, 박제상
		2	신라 장군, 이사부
		3	바보에서 장군으로, 온달
		4	패장이지만 영웅, 계백
		5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 김유신
		6	해상왕 장보고
09	삶의 반대편, 죽음	1	죄와 벌, 인과응보
		2	죽어서 용이 된 문무왕
		3	극락왕생을 염원한 광덕 엄장
		4	헌신으로 성불한 여자 노비 육면
		5	미륵과 미타를 염원하다
10	고대 한국의 풍속과 예술	1	정월대보름과 한가위의 기원
		2	도깨비의 시조, 비형
		3	소리로 통치하다, 만파식적
		4	악기, 통합을 이끌다
		5	고대 놀이 문화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박 미 선



강의 교안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박 미 선

1주차 | 학습목표

- 한국의 창세신화를 이해한다.
-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을 설명할 수 있다.
- 단군신화의 역사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고조선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 고조선 멸망 후 단군신화의 계승과 오늘날 한국사회 속 단군신화의 영향을 살펴본다.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한국의 창세신화

- 도입
- 신화의 종류: 창세신화와 건국신화
- 한국의 창세신화

03. 단군신화의 역사성과 의미

- 단군신화에 담긴 역사성
- 단군신화와 고조선

02.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 단군신화를 전하는 기록
- 단군신화의 내용
- 단군신화 속 상징에 담긴 한국문화

04. 단군신화의 계승과 영향

- 고조선 멸망 후 단군신화의 계승
- 오늘날 한국사회 속 단군신화의 영향

1주차 |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1주차 | 학습목표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학습목표

- 한국의 창세신화가 가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한국의 창세신화와 전승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도입
- 신화의 종류 : 창세신화와 건국신화
- 한국의 창세신화

도입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신화와 설화

- 민족, 국가의 기원이 담겨 있음
- 지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담겨 있음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10가지 주제로 구성

- 1주차: 단군신화
- 2주차: 건국신화
- 3주차: 고대 왕의 신이한 능력



단군도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10가지 주제로 구성

- 4주차: 불교의 수용
- 5주차: 부처의 나라



수월관음도

[출처02] 국립중앙박물관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10가지 주제로 구성

- 6주차: 사랑과 혼인
- 7주차: 고대인의 효(孝)
- 8주차: 고대인의 충(忠)
- 9주차: 삶의 저편, 죽음
- 10주차: 고대인의 풍속과 예술활동



정기화 필
무용총 무용도

[출처03] 국립중앙박물관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신화와 설화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단군 신화

- 단군: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움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창세 신화

신화의 종류: 창세신화와 건국신화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신화(神話) : 신에 관한 이야기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창세신화 건국신화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창세신화

- 우주, 하늘과 땅 및 인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 예) 그리스신화, 중국 반고신화 등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건국신화

- 한 나라의 성립에 관한 이야기
- ‘건국자[시조]’의 이야기
- 예) 로마건국신화, 고구려 주몽신화, 신라 혁거세신화 등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창세가

- 무당이 굿할 때 부르던 노래
- ‘미륵’이 하늘과 땅 분리, 물과 불 찾기
- 금벌레, 은벌레 → 남자, 여자로 변함
- 인간세상을 놓고 미륵과 석가가 꽃피우기 내기를 함

한국의 창세신화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천지왕 본풀이

- 무당이 굿을 할 때 신의 이력을 설명하는 것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천지왕 본풀이

- 하늘과 땅이 분리될 때, 천지왕이
해와 달 두 개씩 내려 보냄
- 천지왕이 지상에 와서 두 아들 대별왕, 소별왕을 낳음
- 이승과 저승의 통치를 놓고 대별왕과 소별왕이 꽃피우기 내기를 함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마고할미

- 마고: '이름'이라는 뜻을 가짐
- 할미: '할머니'라는 뜻을 가짐



| 마고할미

[출처04] 국립민속박물관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마고할미

- 거인 여성
- 하늘과 땅을 분리, 산과 섬, 강 등
지형을 만듦
- 전국적으로 분포
: 노고할미, 설문대할망 등으로 불림



| 마고할미

[출처04] 국립민속박물관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창세가, 천지왕 본풀이

- ‘꽃피우기 내기’
- 무속신앙에서 전승
- 각 지역에서만 전승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마고할미

- ‘거인, 여성’
- 전국적으로 분포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1차시 한국의 창세신화



마무리

- 구비 전승된 창세 신화
- 오늘날 어린이 책, 웹툰 등으로 재탄생하는 창제 신화
- 상상력을 자극하는 창세 신화

SOURCES

- [출처01]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36554469>
- [출처02]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2310>
- [출처03]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209966>
- [출처04] 국립민속박물관
<https://www.nfm.go.kr/common/apithumb/relic/6742591.do>



기획·조정
이진형·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한국의 창세신화

- 도입
- 신화의 종류: 창세신화와 건국신화
- 한국의 창세신화

03. 단군신화의 역사성과 의미

- 단군신화에 담긴 역사성
- 단군신화와 고조선

02.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 단군신화를 전하는 기록
- 단군신화의 내용
- 단군신화 속 상징에 담긴 한국문화

04. 단군신화의 계승과 영향

- 고조선 멸망 후 단군신화의 계승
- 오늘날 한국사회 속 단군신화의 영향

1주차 |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2차시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1주차 | 학습목표

2차시.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학습목표

- 단군신화를 전하는 기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 단군신화의 내용을 이해한다.
- 단군신화 속 상징에 담긴 한국문화를 살펴본다.

학습내용

- 단군신화를 전하는 기록
- 단군신화의 내용
- 단군신화 속 상징에 담긴 한국문화

단군신화를 전하는 기록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2차시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삼국유사(三國遺事)

- 일연(1206~1289)의 저술
- 1281~1283년 저술



삼국유사

[출처01] 국립중앙박물관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2차시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제왕운기(帝王韻紀)

- 이승휴(1224~1300)의 저술
- 1287년 저술



제왕운기

[출처02] 국립중앙박물관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2차시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13세기에 기록된 <삼국유사>, <제왕운기>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2차시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삼국유사

- <위서>, <고기> 인용의 저술



제왕운기

- <단군본기> 인용

[출처01] 국립중앙박물관 [출처02] 국립중앙박물관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2차시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13세기 이전부터 '단군신화' 기록 존재



| 단군도

[출처03] 국립중앙박물관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2차시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삼국사기(三國史記)

- 현존하는 한국 최고(最古)의 역사책
- 단군신화 기록이 없음



| 삼국사기

[출처04] 국립중앙박물관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2차시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13세기 말, 단군신화에 주목한 이유

- 국가적 위기 상황: 몽골과의 전쟁(1231~1259)
- 정신적, 문화적 구심점 필요
- 최초의 국가를 건설한 '단군'에 주목



| 단군도

[출처03] 국립중앙박물관

단군신화의 내용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2차시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인간세상으로 내려온 환웅

- 환웅 = 하늘의 신(환인)의 아들
환웅이 천부인, 3,000 여명, 풍백, 운사,
우사를 데리고 내려옴
- 곡식, 질병, 형벌 등 360여가지 일을 담당



| 환웅 이미지

[출처05] gattyimages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2차시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인간이 되고 싶은 곰과 호랑이

- 곰,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인간이 되길 요청함
-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고 함



| 곰과 호랑이에게 쑥을 주는 환웅

[출처06] Clipartkorea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2차시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인간이 된 곰

- 곰은 잘 지켜서 21일만에 여자로 변함 → 웅녀
- 호랑이는 지키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함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2차시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단군왕검의 탄생

- 웅녀는 혼인을 하고 싶어함
- 환웅이 남자로 변해 웅녀와 혼인함
- 웅녀가 아들 '단군왕검'을 낳음



| 단군왕검의 탄생

[출처07] gattyimages

단군신화 속 상징에 담긴 한국문화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2차시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환인(桓因)

- 하늘을 다스리는 신
 - 제석(帝釋): 불교에서 도리천을 다스리는 신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2차시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곰과 호랑이

- 토텐: 동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음
-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의 등장



곰과 호랑이에게 쑥을 주는 환웅

[출처06] Clipartkorea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2차시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쑥과 마늘

- 오늘날 한국 음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
- 해독 작용이 있음



쑥



마늘

[출처08] [출처09] Clipartkorea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2차시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단군신화 속 숫자

- 360여 가지 → 360=1년
- 100일: 아이가 태어나 100일이 되는 날
잔치를 함 → 백일 잔치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2차시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단군신화 속 숫자

- 삼칠일=3•7일=21일
→ 아이를 낳은 후 21일까지 외부의 출입을 금기함
→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함

SOURCES



- [출처01]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2487>
- [출처02]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36551861>
- [출처03]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36554469>
- [출처04]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2966>
- [출처05] gattyimages
<https://www.gettyimagesbank.com/view/%EB%8B%A8%EA%B5%B0%EC%8B%A0%ED%99%94-%EA%B0%9C%EC%B2%9C%EC%A0%88%EC%A0%84%EB%9E%98%EB%8F%99%ED%99%94/jv10971869>

SOURCES



- [출처06] Clipartkorea
- [출처07] gattyimages
<https://www.gettyimagesbank.com/view/%EB%8B%A8%EA%B5%B0%EC%8B%A0%ED%99%94-%EA%B0%9C%EC%B2%9C%EC%A0%88%EC%A0%84%EB%9E%98%EB%8F%99%ED%99%94/jv10971877>
- [출처08] Clipartkorea
- [출처09] Clipartkorea



기획·조정
이진형·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한국의 창세신화

- 도입
- 신화의 종류 : 창세신화와 건국신화
- 한국의 창세신화

02.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 단군신화를 전하는 기록
- 단군신화의 내용
- 단군신화 속 상징에 담긴 한국문화

03. 단군신화의 역사성과 의미

- 단군신화에 담긴 역사성
- 단군신화와 고조선

04. 단군신화의 계승과 영향

- 고조선 멸망 후 단군신화의 계승
- 오늘날 한국사회 속 단군신화의 영향

1주차 |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3차시

단군신화의 역사성과 의미

1주차 | 학습목표

3차시. 단군신화의 역사성과 의미



학습목표

- 단군신화에 담긴 역사성을 살펴본다.
- 단군신화를 통해 고조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단군신화에 담긴 역사성
- 단군신화와 고조선



단군신화에 담긴 역사성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3차시 단군신화의 역사성과 의미



삼국유사(三國遺事)

- // 단군왕검은 (중국) 요임금임이 즉위한 50년
경인년(庚寅年)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朝鮮)이라 일컬었다. //
- //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3차시 단군신화의 역사성과 의미



조선 = 고조선

- 1392년 이성계에 의해 건국한 '조선'과 구별
- 단군이 세운 조선 = 옛 '고(古)'를 붙여 '고조선'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3차시 단군신화의 역사성과 의미



고조선에 관한 역사적 사실

- 기원전 7세기 <관자>에 고조선 기록이 있음
- 기원전 4세기 중국 연나라와 전쟁을 함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3차시 단군신화의 역사성과 의미



고조선에 관한 역사적 사실

- 기원전 194년 연나라에서 온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 됨
- 기원전 108년 중국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해 멸망함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3차시 단군신화의 역사성과 의미



고조선의 건국시기

- 신화: 기원전 2333년
- 고고학: 기원전 15세기 경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3차시 단군신화의 역사성과 의미



고조선의 건국시기

- 곰, 호랑이 토tem : 신석기 시대 요소가 있음
- 풍백(바람), 운사(구름), 우사(비):
농경문화 요소 → 청동기 시대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3차시 단군신화의 역사성과 의미



고조선의 건국시기

- 환웅: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전환
- 단군의 고조선: 청동기 시대



단군신화와 고조선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3차시 단군신화의 역사성과 의미



단군신화

- 환웅 이야기가 중심
- 환인 - 환웅 - 단군: 천손의식 주장
- 통치자 단군왕검의 신성성 강조
 - 단군의 고조선 건국 및 통치 정당성 부여



기획·조정
이진형·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1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한국의 창세신화

- 도입
- 신화의 종류: 창세신화와 건국신화
- 한국의 창세신화

03. 단군신화의 역사성과 의미

- 단군신화에 담긴 역사성
- 단군신화와 고조선

02. 단군신화의 내용과 상징

- 단군신화를 전하는 기록
- 단군신화의 내용
- 단군신화 속 상징에 담긴 한국문화

04. 단군신화의 계승과 영향

- 고조선 멸망 후 단군신화의 계승
- 오늘날 한국사회 속 단군신화의 영향

1주차 |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4차시

단군신화의 계승과 영향

1주차 | 학습목표

4차시. 단군신화의 계승과 영향



학습목표

- 고조선 멸망 후 단군신화가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살펴본다.
- 오늘날 한국사회 속 단군신화의 영향을 이해한다.

학습내용

- 고조선 멸망 후 단군신화의 계승
- 오늘날 한국사회 속 단군신화의 영향

고조선 멸망 후

단군신화의 계승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4차시 단군신화의 계승과 영향



곰과 호랑이

- 한국인에게 친숙하고 무서운 동물
- 단군신화의 중요한 모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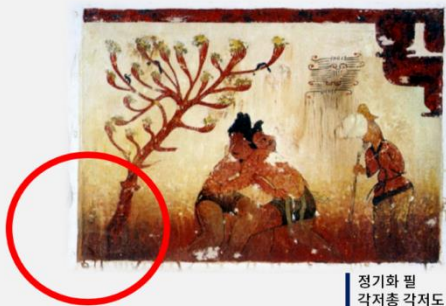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4차시 단군신화의 계승과 영향



정기화 필
각저총 각저도

[출처01] 국립중앙박물관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4차시 단군신화의 계승과 영향



정기화 필
각저총 각저도



[출처01] 국립중앙박물관 [출처02]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4차시 단군신화의 계승과 영향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

- 고려 시대, 조선 시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이용



강화 참성단

[출처03] 문화재청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4차시 단군신화의 계승과 영향



조선(1392~1910)

- 1392년 이성계가 건국
- 나라 이름 '조선': 단군이 세운 조선을 계승
→ 단군 및 고조선에 대한 계승 의식이 조선에 남음



경복궁 근정전

[출처04] 문화재청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4차시 단군신화의 계승과 영향



개천절(10월 3일)

-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
- 국경일(1949년 제정)

오늘날 한국사회 속 단군신화의 영향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4차시 단군신화의 계승과 영향



홍익인간(弘益人間)

-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
- 교육 이념으로 제시됨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4차시 단군신화의 계승과 영향



단군

- 민족의 구심적 역할
- 13세기 몽골의 침입,
20세기 일제강점기 때 강조됨

1주차 역사가 시작되다: 단군신화 | 4차시 단군신화의 계승과 영향



마무리

- 구비 전승된 창세 신화 → 널리 알려지지 못함
- 단군신화는 13세기 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됨
- 단군: 한국 문화적 요소의 상징

SOURCES



- [출처01] 국립중앙박물관
[출처02]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출처03] 문화재청
[출처04] 문화재청

REFERENCE



- 일연, 《삼국유사》
김부식, 《삼국사기》
이기동 외, 《한국사시민강좌 32집 - 한국인의 기원》, 일조각, 2003
이기백·이기동, 《한국사 강좌 1-고대편》, 일조각, 1990
노태돈 편저,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송호정,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기획·조정
이진형·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

기타 학습요소

퀴즈

다음 중 한국의 창세신화가 아닌 것은?

- ① 함흥 창세가
- ② 천지왕 본풀이
- ③ 마고 할미
- ④ 반고

정답: ④

해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1주차 1차시 강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퀴즈

현재 남아 있는 역사서 중 단군신화를 기록한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 ① 삼국사기
- ② 삼국유사
- ③ 고려사
- ④ 조선왕조실록

정답: ②

해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1주차 2차시 강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퀴즈

단군신화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군은 고조선의 건국자이다.
- ② 단군의 아버지는 환웅이다.
- ③ 곰과 호랑이는 모두 인간이 되었다.
- ④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정답: ③

해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1주차 3차시 강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퀴즈

단군신화에 담긴 한국전통문화의 요소가 아닌 것은?

- ①마늘
- ②21일
- ③호랑이
- ④제석천

정답: ④

해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1주차 4차시 강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퀴즈

오늘날 한국에서는 10월 3일을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국경일의 명칭은?

정답: 개천절

해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1주차 4차시 강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의 전문(국문)

1

00:00:52,786 --> 00:01:00,460

안녕하십니까 신화와 설화로 보는 한국 고대 문화의 원형 강의를 맡은 박미선입니다.

2

00:01:00,460 --> 00:01:14,340

이 강의는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화와 설화를 통해서 한국의 고대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3

00:01:14,340 --> 00:01:18,278

신화와 설화는 그 자체가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4

00:01:18,278 --> 00:01:24,484

그렇다고 신화와 설화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이 거짓이냐 또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5

00:01:24,484 --> 00:01:32,692

신화와 설화 속에는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시작 즉 기원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 방식

6

00:01:32,692 --> 00:01:39,132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사고 방식들이 다양한 상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7

00:01:39,132 --> 00:01:50,510

그러므로 이 문화의 원형을 이해하고 싶다, 문화를 살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신화와 설화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

00:01:50,510 --> 00:01:55,548

그러면 한국 고대 문화를 보여주는 신화와 설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9

00:01:55,548 --> 00:02:00,053

한국의 역사가 긴 만큼 신화와 설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10

00:02:00,053 --> 00:02:06,493

그래서 저는 이 강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10가지 주제를 선정해보았습니다.

11

00:02:06,493 --> 00:02:10,096

신화에서부터 고대 왕들이 갖고 있었던 신이한 능력

12

00:02:10,096 --> 00:02:13,032

그다음에 한국 문화의 한 축을 차지하는 불교

13

00:02:13,032 --> 00:02:19,339

그리고 곧 한국 문화의 또 다른 한 축을 차지하는 유교 그래서 충과 효를 한 번 살펴보고요.

14

00:02:19,339 --> 00:02:27,280

그리고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결혼,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15

00:02:27,280 --> 00:02:35,255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풍속과 그다음에 그들이 행했던 예술 활동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00:02:35,255 --> 00:02:48,368

신화와 설화는 한국 고대 사회에 국한된 이야기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문화나 한국인의 사고 방식에 영향을 여전히 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17

00:02:48,368 --> 00:02:57,110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고대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8

00:02:57,110 --> 00:03:00,947

1주차에서는 단군 신화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19

00:03:00,947 --> 00:03:05,585

단군 신화는 단군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한 신화인데요.

20

00:03:05,585 --> 00:03:11,191

단군이라는 인물은 한국 역사에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인물입니다.

21

00:03:11,191 --> 00:03:13,459

그러니까 한국 역사의 시작인 거죠.

22

00:03:13,459 --> 00:03:20,967

그래서 우리가 1주 차의 주제로 단군 신화를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3

00:03:20,967 --> 00:03:28,274

그렇다고 단군 신화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화라거나 또는 최초의 신화 그것은 아닙니다.

24

00:03:28,274 --> 00:03:32,612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인간이 사는 세상이 만들어져야겠죠.

25

00:03:32,612 --> 00:03:37,850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 하는 창세 신화가 있습니다.

26

00:03:37,850 --> 00:03:47,493

그래서 먼저 한국의 창세 신화를 살펴보고 이어서 단군 신화의 내용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역사 그리고 단군 신화가 어떻게 계승되어 왔고

27

00:03:47,493 --> 00:03:53,466

오늘날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

00:03:58,404 --> 00:04:03,042

자 그럼 먼저 창세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9

00:04:03,042 --> 00:04:08,581

신화는 말 그대로 신에 관한 또는 신과 같은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

00:04:08,581 --> 00:04:13,353

신화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신화를 분류하는 방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31

00:04:13,353 --> 00:04:20,426

그렇지만 크게 보면 창세 신화와 건국 신화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2

00:04:20,426 --> 00:04:27,634

그래서 창세 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

00:04:27,634 --> 00:04:35,508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인 거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반고 신화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34

00:04:35,508 --> 00:04:41,681

이 신화들을 보면 처음에는 혼돈의 상태 이걸 우리가 카오스라고 하죠.

35

00:04:41,681 --> 00:04:50,456

이 혼돈의 상태에서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인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36

00:04:50,456 --> 00:04:55,762

이러한 과정들을 짚 담고 있는 것이 창세 신화인 거죠.

37

00:04:55,762 --> 00:05:00,400

그리고 건국 신화는 어느 한 국가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38

00:05:00,400 --> 00:05:03,770

다르게 말하면 그 국가를 세운 인물이 있겠죠.

39

00:05:03,770 --> 00:05:07,373

그 인물을 우리가 시조라고 얘기하는데요.

40

00:05:07,373 --> 00:05:10,777

그 인물 시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41

00:05:10,777 --> 00:05:16,182

예를 들자면 로마 건국 신화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신화가 있습니다.

42

00:05:16,182 --> 00:05:20,386

이것은 로마가 어떻게 건국했는지 말 그대로 건국 신화이죠.

43

00:05:20,386 --> 00:05:27,760

그렇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와 레무스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44

00:05:27,760 --> 00:05:36,569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주인공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뽑아서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신화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45

00:05:36,569 --> 00:05:48,314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국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 등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생겨났었고요, 각각 그 나라들마다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46

00:05:48,314 --> 00:05:51,451

그리고 그 건국을 한 주체가 있죠.

47

00:05:51,451 --> 00:05:56,756

그래서 고구려는 주몽, 백제는 온조, 신라는 혁거세 이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48

00:05:56,756 --> 00:06:08,234

그래서 고구려 신화 이렇게 나라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주몽, 온조, 혁거세처럼 시조의 이름을 담아서 주몽신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49

00:06:14,006 --> 00:06:17,643

그러면 한국의 창세 신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0

00:06:17,643 --> 00:06:21,814

한국의 창세 신화는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51

00:06:21,814 --> 00:06:25,852

그래서 먼저 창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

00:06:25,852 --> 00:06:31,391

여기서 창세가에서 가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말합니다.

53

00:06:31,391 --> 00:06:42,835

그런데 이 노래는 일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는 아니고요, 무당이 어떤 의식을 하는 그걸 굿이라고 하는데 굿이라고 하는 의식을 할 때 불렀다고 합니다.

54

00:06:42,835 --> 00:06:50,910

창세가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창세 신화답게 처음은 혼돈의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55

00:06:50,910 --> 00:07:01,687

혼돈의 세상에 미륵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고 미륵이라는 자가 제일 먼저 하늘과 땅을 분리를 하고 그러면 사람이 살려면 물과 불
이 필요하겠죠.

56

00:07:01,687 --> 00:07:12,632

그래서 물과 불이 어디에 있는지 그 물과 불의 기원을 찾아내게 되고 그런 다음에 한 손에는 금쟁반을 그리고 다른 손에는 은쟁반을 들고
하늘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57

00:07:12,632 --> 00:07:20,139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금벌레와 은벌레가 각각 금쟁반과 은쟁반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58

00:07:20,139 --> 00:07:26,012

그리고 그 벌레들이 금벌레는 남자가 되고 은벌레는 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59

00:07:26,012 --> 00:07:27,280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탄생인 거죠.

60

00:07:27,280 --> 00:07:36,589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탄생을 하니 결국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게 된 거고 그 혼인한 결과 자식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61

00:07:36,589 --> 00:07:40,893

그래서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62

00:07:40,893 --> 00:07:43,196

자 이 신화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63

00:07:43,196 --> 00:07:52,839

이렇게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인간 세상을 누가 다스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한 번 벌어지게 됩니다.

64

00:07:52,839 --> 00:08:00,079

이때 인간 세상을 누가 다스릴 것이냐를 놓고 미륵이라고 하는 존재와 석가라는 존재가 경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65

00:08:00,079 --> 00:08:10,523

그럼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이냐, 경쟁 방식은 누가 먼저 꽃을 피우느냐 그래서 꽃을 먼저 피우는 자가 승리하는 것 이렇게 내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66

00:08:10,523 --> 00:08:13,693

사실은 미륵이 먼저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67

00:08:13,693 --> 00:08:22,468

그런데 석가가 그 꽃을 몰래 가져가서 결국 자기가 먼저 꽃을 피운 것처럼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68

00:08:22,468 --> 00:08:34,881

그래서 결국 승리한 석가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그 결과 미륵은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69

00:08:34,881 --> 00:08:40,086

두 번째 한국 창세 신화로는 천지왕 본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0

00:08:40,086 --> 00:08:47,560

여기서 본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당이 굿을 할 때 신을 불러내잖아요.

71

00:08:47,560 --> 00:08:56,435

근데 그 신이 어디에서 왔고 그다음에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신의 이력을 쭉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72

00:08:56,435 --> 00:09:00,506

그래서 이 신화 또한 무당에 의해서 전해지게 된 거죠.

73

00:09:00,506 --> 00:09:10,349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혼돈의 세상, 암흑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암흑의 세상에서 서서히 하늘과 땅이 벌어지고 있을 때

74

00:09:10,349 --> 00:09:19,692

이때 하늘의 신이었던 천지왕이 인간 세상을 위해서 해와 달을 보냈는데 해와 달을 하필이면 두 개씩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75

00:09:19,692 --> 00:09:23,262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 세상이 혼란스러웠던 거죠.

76

00:09:23,262 --> 00:09:34,373

결국 천지왕은 혼란을 어떻게 정리하고자 인간 세상에 잠시 내려오게 되는데 인간 세상에 내려왔을 때 총명부인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77

00:09:34,373 --> 00:09:38,044

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78

00:09:38,044 --> 00:09:43,516

그 아들이 첫째 대별왕과 둘째 소별왕입니다.

79

00:09:43,516 --> 00:09:53,492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 고민하던 천지왕은 이승과 저승을 각각 자기 첫째 아들인 대별왕과 소별왕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80

00:09:53,492 --> 00:10:00,700

그래서 이승은 첫째 아들인 대별왕에게 저승은 둘째 아들인 소별왕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81

00:10:00,700 --> 00:10:13,312

그런데 둘째 아들이었던 소별왕이 먼저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 이승의 세계를 맡기자라고 하는 제의를 하게 되는 거고 아버지였던 천지왕이 그 제의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82

00:10:13,312 --> 00:10:17,049

그래서 두 아들은 열심히 꽃 피우기를 하게 되는 거죠.

83

00:10:17,049 --> 00:10:21,420

그래서 첫째 아들이었던 대별왕이 사실은 먼저 꽃을 피웠습니다.

84

00:10:21,420 --> 00:10:30,062

그런데 둘째 아들이었던 소별왕이 그 꽃을 훔쳐다가 몰래 자기가 먼저 꽃 피운 것처럼 아버지에게 말을 하게 된 거죠.

85

00:10:30,062 --> 00:10:37,737

결국 꽃 피우기 내기에서 승리한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하게 되고 대별왕은 저승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86

00:10:37,737 --> 00:10:46,579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승에 와서 통치를 하려고 봤더니 소별왕 입장에서 딱 봤더니 여전히 해와 달이 두 개씩 있었던 거죠.

87

00:10:46,579 --> 00:10:53,252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대별왕 형님을 불러오게 됩니다.

88

00:10:53,252 --> 00:11:04,764

그래서 형님인 대별왕이 해 하나와 달 하나를 없애주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인간 세상이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9

00:11:04,764 --> 00:11:09,168

세 번째 창세 신화로는 마고할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90

00:11:09,168 --> 00:11:14,640

여기서 마고는 사람 이름이고요, 할미는 할머니를 말합니다.

91

00:11:14,640 --> 00:11:18,244

그리고 할머니가 엄청 큰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92

00:11:18,244 --> 00:11:23,949

그래서 할머니가 어느 날 자다가 눈을 떠서 기지개를 켜 펴게 되는 거죠.

93

00:11:23,949 --> 00:11:37,163

그랬더니 혼돈의 세상에 손을 한번 짹 뻗었더니 그 사이에 하늘과 땅이 탁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었고 주변에 보이는 흙을 가지고 조물락 조물락 했더니 산이 만들어지고 섬이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94

00:11:37,163 --> 00:11:49,108

그리고 거인 할머니가 소변을 봤더니 그 오줌이 흘러서 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각종 지형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95

00:11:49,108 --> 00:12:00,386

이 신화는 마고할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다르게는 노고 할미 또는 설문대 할망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96

00:12:00,386 --> 00:12:09,328

그것은 이 신화가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전승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97

00:12:09,328 --> 00:12:13,699

이렇듯 한국의 여러 창세 신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98

00:12:13,699 --> 00:12:21,040

여러분들은 창세 신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창세 신화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보이시나요.

99

00:12:21,040 --> 00:12:29,749

한국의 창세 신화도 창세 신화답게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인간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

00:12:29,749 --> 00:12:35,588

그런데 한국의 창세 신화 세 가지는 크게 보면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1

00:12:35,588 --> 00:12:43,129

창세가와 천지왕 본풀이가 한 가지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마고 할미가 또 다른 종류의 창세신화가 됩니다.

102

00:12:43,129 --> 00:12:52,738

자 창세가와 천지왕 본풀이의 경우에는 인간 세상의 통치를 놓고 꽃 피우기 내기라고 하는 아주 유사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죠.

103

00:12:52,738 --> 00:12:57,643

그리고 두 신화는 똑같이 무속 신앙에서 전승이 되었다.

104

00:12:57,643 --> 00:13:03,983

즉 무당들이 굿을 하면서 노래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도 공통적입니다.

105

00:13:03,983 --> 00:13:14,560

이 신화들이 무속 신앙에서 전승이 되다 보니까 이후에 불교나 유교 이런 종교들이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사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106

00:13:14,560 --> 00:13:26,438

결국은 무속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 신화를 기록으로 남겨서 잘 전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107

00:13:26,438 --> 00:13:33,612

그래서 이 신화들은 특정한 한 지역에서만 전해질 뿐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108

00:13:33,612 --> 00:13:40,152

특히 창세가라고 하는 신화의 경우에는 1923년에 채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109

00:13:40,152 --> 00:13:42,721

그러면서부터 알려지게 되었던 거죠.

110

00:13:42,721 --> 00:13:51,497

한편 마고할미의 경우에는 창세가나 천지왕 본풀이하고는 달리 여성, 거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화적인 요소가 보입니다.

111

00:13:51,497 --> 00:13:58,804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신화적인 요소는 오히려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유사한 신화로 남아 있게 되는 거고요.

112

00:13:58,804 --> 00:14:10,416

이 전국 각지에 이런 유사한 신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가장 대표적인 창세 신화로 한국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13

00:14:10,416 --> 00:14:18,824

이렇듯 구비 전승되었고 지역에서만 전승되었다 보니까 그동안 창세 신화가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114

00:14:18,824 --> 00:14:29,802

다행히 오늘날에는 어린이 책이나 웹툰 등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창세 신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15

00:14:29,802 --> 00:14:35,808

특히 창세 신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을 많이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116

00:14:35,808 --> 00:14:44,149

그리고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117

00:14:44,149 --> 00:14:52,458

그래서 21세기에 이렇게 신화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소스를 제공하는 데

118

00:14:52,458 --> 00:14:59,498

큰 관심을 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00:00:20,520 --> 00:00:29,496

한국의 창세 신화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단군 신화의 내용과 그 속에 숨겨진 상징의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00:00:29,496 --> 00:00:39,205

한국의 창세 신화가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구전으로만 전해진 것과 달리 단군 신화는 기록으로 남아서 전승이 되었습니다.

3

00:00:39,205 --> 00:00:47,847

현재까지 남아있는 옛 책 중에서 단군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책은 《삼국유사》입니다.

4

00:00:47,847 --> 00:00:55,955

《삼국유사》는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쓴 책으로 여기서 말하는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하는데요.

5

00:00:55,955 --> 00:01:08,201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고대의 역사, 불교 사상, 불교 관련 인물 그리고 불교 관련 설화 그리고 탐이나 사찰과 같은 문화재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6

00:01:08,201 --> 00:01:22,649

그래서 이 일연 스님은 이 책을 역사책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고요, 역사책에서 빠진 이야기들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유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삼국유사가 된 것입니다.

7

00:01:22,649 --> 00:01:29,622

이 책은 1281년에서 1283년 묘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

00:01:29,622 --> 00:01:38,264

왜냐하면 일연 스님이 젊었을 때부터 전국 각지를 다니시면서 들었거나 보거나 한 것들을 수집을 해놓았던 거죠.

9

00:01:38,264 --> 00:01:49,943

그 수집한 자료들을 일연 스님 말년인 1281년에서 83년 이 사이에 아마 정리를 하고 책으로 묶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

00:01:49,943 --> 00:01:58,218

《삼국유사》와 함께 1287년에 저술된 《제왕운기》라고 하는 책에도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11

00:01:58,218 --> 00:02:04,457

《제왕운기》는 이승휴라고 하는 학자이자 관료였던 사람이 쓴 책입니다.

12

00:02:04,457 --> 00:02:11,631

그래서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는 단군 신화와 《제왕운기》에 실려 있는 단군 신화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13

00:02:11,631 --> 00:02:19,639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13세기 말에 단군 신화가 주목이 되고 있고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 거죠.

14

00:02:19,639 --> 00:02:27,447

그럼 단군 신화는 13세기 말에 가서야 그때 비로소 기록이 되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15

00:02:27,447 --> 00:02:37,724

《삼국유사》는 일연 스님이 자기 마음대로 단군 신화를 썼느냐 그건 아니고요, 《위서》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6

00:02:37,724 --> 00:02:45,365

그리고 《제왕운기》 또한 《단군본기》라고 하는 기록을 인용하면서 단군 신화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17

00:02:45,365 --> 00:02:56,309

그러니까 13세기 말 《삼국유사》나 《제왕운기》가 저술되기 훨씬 이전부터 단군 신화에 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

00:02:56,309 --> 00:03:06,719

다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이건 1145년에 저술된 책인데요.

19

00:03:06,719 --> 00:03:16,729

특히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삼국유사》나 《제왕운기》처럼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왕의 명령을 받고 편찬한 역사서입니다.

20

00:03:16,729 --> 00:03:22,368

그런데 가장 오래된 《삼국사기》에는 안타깝게도 단군 신화가 없습니다.

21

00:03:22,368 --> 00:03:28,174

《삼국사기》가 기록됐을 시점에 단군 신화에 대한 기록이 없었을까, 아니요 있었을 것입니다.

22

00:03:28,174 --> 00:03:40,787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단군 신화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거나 또는 이걸 굳이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23

00:03:40,787 --> 00:03:54,934

그러다 보니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수록되지 못하고 13세기 말에 가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신화가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24

00:03:54,934 --> 00:04:04,510

그렇다면 13세기 말에 가서 단군 신화가 새삼 주목되었던 그리고 이렇게 다시 기록되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이었을까요.

25

00:04:04,510 --> 00:04:11,818

13세기라고 하는 시기는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좀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26

00:04:11,818 --> 00:04:17,824

13세기에는 당시 한국은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와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27

00:04:17,824 --> 00:04:24,197

몽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라시아 대륙을 다 평정하고 대제국을 형성했던 나라인 거죠.

28

00:04:24,197 --> 00:04:31,237

결국은 그 속에서 몽골과 한국의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29

00:04:31,237 --> 00:04:42,949

수십 년의 전쟁을 하는 동안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받는 고통도 굉장히 커지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은 국가적인 대재난으로 인식이 되게 되었던 거죠.

30

00:04:42,949 --> 00:04:50,823

그럼 과연 이러한 국가적인 대재난 그다음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31

00:04:50,823 --> 00:04:58,364

그래서 결국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통합할 정신적인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32

00:04:58,364 --> 00:05:03,036

자 그래서 그 구심점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찾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3

00:05:03,036 --> 00:05:08,841

우리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그 뿌리는 어딘가 이렇게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 보았던 거죠.

34

00:05:08,841 --> 00:05:21,220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처음 나라를 세운 단군이라고 하는 인물에 주목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 단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책의 첫머리에 수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5

00:05:26,225 --> 00:05:31,798

그럼 단군 신화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36

00:05:31,798 --> 00:05:37,170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전하는 단군 신화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37

00:05:37,170 --> 00:05:46,746

여기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오래된 《삼국유사》에 담겨있는 단군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

00:05:46,746 --> 00:05:50,616

단군 신화는 하늘 세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39

00:05:50,616 --> 00:05:56,255

당시에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 신, 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40

00:05:56,255 --> 00:06:06,499

그리고 그 환인에게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환웅은 항상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인간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41

00:06:06,499 --> 00:06:20,580

환웅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 환인이 결국 환웅에게 천부인을 주고 그다음에 삼천 명과 풍백, 운사, 우사라고 하는 이들을 함께 보내서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게 됩니다.

42

00:06:20,580 --> 00:06:29,489

그래서 환웅은 아버지가 주신 많은 것들을 데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태백산 신단수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43

00:06:29,489 --> 00:06:38,631

이때부터 곡식과 질병, 형벌 이런 여러 가지 360여 가지에 이르는 일들을 맡아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44

00:06:38,631 --> 00:06:50,143

이렇게 환웅이 열심히 통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느 날 호랑이하고 곰이 나타나서 환웅에게 와서 나도 당신과 같은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45

00:06:50,143 --> 00:07:03,923

그러자 환웅은 쉼 한 움큼과 마늘 20쪽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으면 너희들도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46

00:07:03,923 --> 00:07:09,796

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햇볕이 들지 않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47

00:07:09,796 --> 00:07:17,804

곰은 환웅이 시킨 내용을 그대로 잘 지켰더니 무려 21일 만에 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48

00:07:17,804 --> 00:07:21,641

반면에 호랑이는 이거를 지키지 못했던 거죠.

49

00:07:21,641 --> 00:07:24,811

그 결과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50

00:07:24,811 --> 00:07:29,882

여자가 된 꿈은 즉 여자가 된 꿈은 이걸 우리가 웅녀라고 하는데요.

51

00:07:29,882 --> 00:07:34,153

자 웅녀는 사람이 되고 보니 혼인이 하고 싶었습니다.

52

00:07:34,153 --> 00:07:39,759

그래서 이제는 혼인을 하게 해달라고 신단수 아래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53

00:07:39,759 --> 00:07:49,202

이 기도를 보고 듣고 있던 환웅이 결국은 웅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잠시 남자로 변해서 웅녀와 혼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54

00:07:49,202 --> 00:07:55,842

그 결과 웅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단군왕검이었습니다.

55

00:07:55,842 --> 00:08:06,219

단군왕검은 무럭무럭 성장을 해서 기원전 2333년에는 평양성에 수도를 삼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56

00:08:06,219 --> 00:08:14,594

그리고 무려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산신이 되었다고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57

00:08:19,599 --> 00:08:24,804

단군 신화도 오랫동안 구비전승이 되다가 기록이 되었겠죠.

58

00:08:24,804 --> 00:08:35,715

그래서 구비전승되다가 기록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는 빠지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새로 추가가 되거나 또는 새롭게 윤색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59

00:08:35,715 --> 00:08:45,958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시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신화 속에 하나 둘씩 반영이 되었던 거죠.

60

00:08:45,958 --> 00:08:50,630

그렇다면 단군 신화에 숨겨져 있는 한국 문화적인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61

00:08:50,630 --> 00:08:53,633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

00:08:53,633 --> 00:09:06,379

자 먼저 하늘을 다스리는 신 우리가 보통 하늘님 이거를 발음상 하느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단군 신화에서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 하느님을 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63

00:09:06,379 --> 00:09:15,154

환인에 대해서 《삼국유사》에서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제석이다라고 덧붙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4

00:09:15,154 --> 00:09:24,997

제석은 제석천을 말하는 것으로 불교에서 도리천이라고 하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바로 제석천입니다.

65

00:09:24,997 --> 00:09:29,168

《삼국유사》가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쓴 책이라고 했잖아요.

66

00:09:29,168 --> 00:09:42,448

자 승려인 일연이 단군 신화를 옮겨 기록을 하다 보니 하늘의 신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불교적인 용어를 덧붙여서 추가적인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67

00:09:42,448 --> 00:09:47,453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불교가 수용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거죠.

68

00:09:47,453 --> 00:09:52,491

이 책이 수록된 게 13세기 말인데 불교가 수용된 거는 4세기였거든요.

69

00:09:52,491 --> 00:10:01,133

그러면 이미 1000년 가까운 시기에 불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위로는 왕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70

00:10:01,133 --> 00:10:04,904

그러니까 불교 문화와 불교적인 용어 이런 것들이 익숙했던 거죠.

71

00:10:04,904 --> 00:10:14,347

그래서 이미 이전에 불교를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신을 제석천, 불교적인 용어인 제석천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고

72

00:10:14,347 --> 00:10:23,889

그런 부분들이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에 수록하면서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설명으로 덧붙여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73

00:10:23,889 --> 00:10:33,566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는 전승돼 오는 과정에서 불교적인 요소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74

00:10:33,566 --> 00:10:40,039

그리고 단군 신화에서 가장 재미있고 특이한 내용은 결국 곰과 호랑의 이야기죠.

75

00:10:40,039 --> 00:10:52,151

곰과 호랑이라고 하는 두 동물은 만주와 한반도에 살았던 동물들인 거고 그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동물이었습니다.

76

00:10:52,151 --> 00:11:00,059

때문에 곰과 호랑이를 하나의 자기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부족들과 집단들이 있었던 거죠.

77

00:11:00,059 --> 00:11:03,129

이걸 우리가 일명 토템이라고 얘기합니다.

78

00:11:03,129 --> 00:11:11,771

그래서 단군 신화 속에서 곰과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체하는 곰과 호랑이라고 하는 동물 그 자체가 아니라

79

00:11:11,771 --> 00:11:19,145

곰과 호랑이를 숭배했던 집단 부족 이들을 얘기하는 토템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80

00:11:19,145 --> 00:11:23,282

그리고 이 신화에서는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요.

81

00:11:23,282 --> 00:11:32,458

실제로 호랑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호랑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화들이 후대에도 많이 보입니다.

82

00:11:32,458 --> 00:11:44,870

아마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들이 결국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 이런 신화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83

00:11:44,870 --> 00:11:53,045

그리고 환웅이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줬죠.

84

00:11:53,045 --> 00:11:58,284

쑥과 마늘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한국 음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85

00:11:58,284 --> 00:12:04,757

특히 마늘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86

00:12:04,757 --> 00:12:10,229

쑥 같은 경우에는 봄이 되면 사람들이 쑥을 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해 먹게 되죠.

87

00:12:10,229 --> 00:12:23,175

이 쑥과 마늘에 여러 가지 효능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보면 공통되는 요소가 뭐냐 하면 해독 작용 즉 독을 풀어주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88

00:12:23,175 --> 00:12:26,612

쑥과 마늘을 먹고 곰이 사람이 됐잖아요.

89

00:12:26,612 --> 00:12:33,052

그래서 결국 이것은 곰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거죠.

90

00:12:33,052 --> 00:12:43,829

그 말은 결국은 곰이 갖고 있던 독이 사라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돼서 쑥과 마늘이라는 음식이

91

00:12:43,829 --> 00:12:52,938

곰을 사람으로 바꾸는 그러한 재료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2

00:12:52,938 --> 00:12:56,142

그리고 단군 신화에는 숫자가 좀 많이 보입니다.

93

00:12:56,142 --> 00:13:01,480

그리고 이러한 숫자 또한 한국 문화와 관련해서 보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94

00:13:01,480 --> 00:13:09,288

먼저 환웅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360여 가지를 담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95

00:13:09,288 --> 00:13:16,228

360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365일 즉 1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와 유사합니다.

96

00:13:16,228 --> 00:13:24,069

1년이라고 하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거고 그 변화들을 다 경험하는 한 주기가 되는 거죠.

97

00:13:24,069 --> 00:13:36,348

그래서 360여 가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1년이라고 하는 주기 당시 옛날 사람들도 1년을 한 단위 주기로 인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98

00:13:36,348 --> 00:13:44,023

그리고 여기서 단군 신화에서 보면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100일을 버텨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99

00:13:44,023 --> 00:13:49,361

100이라고 하는 숫자 또한 한국 문화에서 매우 중시되는 숫자입니다.

100

00:13:49,361 --> 00:13:58,170

가장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 100일 잔치라고 하는 잔치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101

00:13:58,170 --> 00:14:02,007

이건 가장 오래된 전통이기도 하는데요.

102

00:14:02,007 --> 00:14:15,955

그래서 100일은 오늘날에도 보면 남녀가 사귀고 기념일을 삼을 때도 100일 된 기념일 뭐 이런 걸 한다거나 또는 국가적으로 봐도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새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되면

103

00:14:15,955 --> 00:14:30,936

취임한 지 100일 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 이런 거에 대한 특집 기사들이나 특집 르포 이런 것들을 방송할 정도로 100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들이 한국 문화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104

00:14:30,936 --> 00:14:35,441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105

00:14:35,441 --> 00:14:50,890

그런데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100일을 버텨라라고 얘기했는데 곰과 호랑이 중에서 환웅이 시키는 것들을 차곡차곡 잘 지켰던 곰의 경우에는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106

00:14:50,890 --> 00:14:53,459

100일을 채 채우지 않았던 거죠.

107

00:14:53,459 --> 00:14:58,030

21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명 21일은 삼칠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08

00:14:58,030 --> 00:15:03,469

이거는 말 그대로 7일이 세 번 반복된다 그러니까 3주가 되는 거죠.

109

00:15:03,469 --> 00:15:05,938

그래서 우리가 이것 삼칠일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110

00:15:05,938 --> 00:15:12,144

삼칠일 21 일 같은 경우에도 한국 문화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짜입니다.

111

00:15:12,144 --> 00:15:14,813

이것도 아이 탄생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112

00:15:14,813 --> 00:15:19,985

아이를 낳은 이후에 21일까지는 외부 사람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113

00:15:19,985 --> 00:15:28,494

왜냐하면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외부 사람이 들락날락하다 보면 나쁜 균을 옮긴다거나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114

00:15:28,494 --> 00:15:35,935

그래서 21일간은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금기의 기간이 됩니다.

115

00:15:35,935 --> 00:15:45,644

이렇게 단군 신화에서 보면 100일과 21일이 등장하는 것은 결국 꿈이 사람이 되는 즉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116

00:15:45,644 --> 00:15:55,154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아이 출산과 관련되는 100일 21일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신화 속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7

00:15:55,154 --> 00:16:07,032

이처럼 단군 신화에 우리 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 것은 단군 신화가 한국의 고유한 신화로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

00:00:20,353 --> 00:00:27,027

앞 시간에서는 단군 신화의 내용과 그 속에 담겨 있는 한국 문화 요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2

00:00:27,027 --> 00:00:35,969

이제 단군 신화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00:00:35,969 --> 00:00:48,648

단군 신화에서의 핵심은 단군왕검은 요임금이 즉위한 50년에 평양성에 도움을 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00:00:48,648 --> 00:00:55,622

한마디로 말하면 단군왕검이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5

00:00:55,622 --> 00:00:59,926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6

00:00:59,926 --> 00:01:05,999

먼저 단군왕검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7

00:01:05,999 --> 00:01:12,906

단군왕검이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를 현재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8

00:01:12,906 --> 00:01:14,240

왜 그럴까요.

9

00:01:14,240 --> 00:01:22,015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가진 나라가 두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10

00:01:22,015 --> 00:01:30,123

1392년에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11

00:01:30,123 --> 00:01:42,602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이전에 있었던 즉 단군이 세운 조선을 옛날, 이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고 자를 붙여서 고조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12

00:01:42,602 --> 00:01:55,014

이 강의에서도 기록에는 조선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강의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3

00:01:55,014 --> 00:02:04,157

고조선은 그럼 과연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나라인가 고조선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00:02:04,157 --> 00:02:09,362

고조선에 관한 기록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자료에는 좀 부족합니다.

15

00:02:09,362 --> 00:02:14,968

다만 이웃 나라인 중국의 고조선에 관한 기록들이 드문드문 보입니다.

16

00:02:14,968 --> 00:02:22,375

고조선에 관한 기록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원전 7세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관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17

00:02:22,375 --> 00:02:27,514

이 관자라는 책에 조선에 관한 내용이 조금 보입니다.

18

00:02:27,514 --> 00:02:33,019

기원전 4세기에는 중국의 연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19

00:02:33,019 --> 00:02:39,959

연이라는 나라는 고조선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종종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전쟁을 했던 거죠.

20

00:02:39,959 --> 00:02:43,830

그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전해지고 있습니다.

21

00:02:43,830 --> 00:02:56,809

자 그리고 기원전 194년에 보면 연이라는 나라에서 고조선으로 망명 온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위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고조선의 왕이 됩니다.

22

00:02:56,809 --> 00:03:04,717

그래서 이후는 위만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해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만 조선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 거죠.

23

00:03:04,717 --> 00:03:13,526

자 이렇게 위만 조선이 쭉 이어지다가 기원전 108년에 가면 중국의 한이라고 하는 나라와 고조선이 전쟁을 하게 되고

24

00:03:13,526 --> 00:03:21,134

1년 간의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결국 이 전쟁에서 고조선이 패함으로 인해서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25

00:03:21,134 --> 00:03:28,074

여기까지가 고조선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6

00:03:28,074 --> 00:03:39,652

자 이렇게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나라인데 자 그렇다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언제 건국했을까 이게 참 궁금하죠.

27

00:03:39,652 --> 00:03:41,621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28

00:03:41,621 --> 00:03:52,799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29

00:03:52,799 --> 00:04:02,709

물론 이 시기 즉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느냐 그게 확실하냐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0

00:04:02,709 --> 00:04:08,348

그래서 이런 고고학적인 성과 이런 것들과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31

00:04:08,348 --> 00:04:19,592

고고학적인 성과를 살펴보게 되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략 기원전 15세기 경 이때 전후해서 건국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2

00:04:19,592 --> 00:04:22,996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신화를 들여다볼까요.

33

00:04:22,996 --> 00:04:27,734

신화에서 보면 곰과 호랑이가 토tem으로 등장을 하죠.

34

00:04:27,734 --> 00:04:32,905

근데 이러한 토테미즘은 사실은 신석기 시대의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35

00:04:32,905 --> 00:04:39,912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동물을 숭배하면서 이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부족의 상징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죠.

36

00:04:39,912 --> 00:04:46,319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는 신석기적인 요소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7

00:04:46,319 --> 00:04:51,991

한편 단군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환웅은 하늘 세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죠.

38

00:04:51,991 --> 00:05:00,566

이때 환웅이 데리고 오는 존재로 풍백, 운사, 우사 이 존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39

00:05:00,566 --> 00:05:04,470

그럼 풍백, 운사, 우사 환웅이 그럼 이 사람만 데리고 왔느냐 아니죠.

40

00:05:04,470 --> 00:05:07,874

기록에 보면 3천여 명을 거느리고 내려옵니다.

41

00:05:07,874 --> 00:05:16,716

그러면 풍백, 운사, 우사도 3천 명 무리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왜 3천 명 무리와 달리 풍백, 운사, 우사를 따로 언급을 하고 있는가

42

00:05:16,716 --> 00:05:21,888

그렇다면 이들은 특별한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43

00:05:21,888 --> 00:05:32,965

자 여기서 말하는 풍백, 운사, 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람 풍, 구름 운, 비 우 즉 바람과 구름과 비를 관장하는 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4

00:05:32,965 --> 00:05:41,674

그러면 이러한 존재를 특별히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45

00:05:41,674 --> 00:05:45,211

농경이라고 하는 건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46

00:05:45,211 --> 00:05:49,682

기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 바람, 구름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47

00:05:49,682 --> 00:05:56,856

자 그렇다면 농경이 일반화돼 있는 이 시점에 고조선이 건국이 되었구나 그럼 농경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48

00:05:56,856 --> 00:06:03,996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 시대 특히 신석기 시대 말기입니다.

49

00:06:03,996 --> 00:06:11,170

그렇지만 농경이 중심이 되고 일반화된 건 언제냐 그거는 청동기 시대로 꼽고 있는 거죠.

50

00:06:11,170 --> 00:06:25,184

자 그래서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360여 가지를 관장을 하면서 풍백, 운사, 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농경이 일반화된 이런 사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51

00:06:25,184 --> 00:06:35,495

그래서 신화 속에서 환웅이 보여주는 시대는 결국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를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2

00:06:35,495 --> 00:06:43,169

자 그리고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건 단군은 환웅의 아들이니까 환웅이 다스리던 한참 후에 고조선을 세우게 되는 거죠.

53

00:06:43,169 --> 00:06:49,208

그러니 당연히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때는 언제다, 청동기 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4

00:06:49,208 --> 00:07:04,123

앞서 고고학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에서 청동기 시대를 대략 기원전 15세기 전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조선의 건국 시기는 신화에서 얘기하는 기원전 2333년이 아니라

55

00:07:04,123 --> 00:07:13,766

결국은 15세기 전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화적인 요소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56

00:07:13,766 --> 00:07:26,979

결국 이렇게 오래되었다 그다음에 역사가 길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연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

00:07:31,984 --> 00:07:48,434

한편 단군 신화는 말 그대로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는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단군 신화 내용을 짚 떠올려보시면 단군에 관한 이야기는 말미에 끝에 잠깐 나옵니다.

58

00:07:48,434 --> 00:07:54,841

그러면 그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이냐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59

00:07:54,841 --> 00:08:05,184

그래서 실제로 말은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얘기하지만 단군 신화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아버지 환웅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

00:08:05,184 --> 00:08:07,653

왜 그럴까요.

61

00:08:07,653 --> 00:08:21,834

자 단군 신화에서 보면 하늘의 신인 환인 그리고 그 환인의 아들인 환웅 그리고 그 환웅의 아들인 단군 이렇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부자 관계가 계승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62

00:08:21,834 --> 00:08:36,115

즉 하늘의 신이었던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환웅은 하늘의 신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러면 환웅의 아들인 단군은 하늘의 신의 손자가 되는 거죠.

63

00:08:36,115 --> 00:08:40,353

이걸 우리가 일명 천손사상, 천손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64

00:08:40,353 --> 00:08:47,860

그러니까 단군 스스로가 내가 누구의 아들이오 누구의 손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단군 스스로가

65

00:08:47,860 --> 00:08:56,269

하늘의 뜻을 떠받드는 또는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본인의 능력들을 보여주게 된 거죠.

66

00:08:56,269 --> 00:09:07,446

그러니 본인 스스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내가 환인의 손자요, 환웅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보를 보여주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67

00:09:07,446 --> 00:09:13,653

하늘의 신의 능력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겁니다.

68

00:09:13,653 --> 00:09:24,263

단군이 고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런 것들을 신화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거죠.

69

00:09:24,263 --> 00:09:28,501

단군은 일명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70

00:09:28,501 --> 00:09:34,907

여기서 말하는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명 무당을 의미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71

00:09:34,907 --> 00:09:38,978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통치자 왕을 의미합니다.

72

00:09:38,978 --> 00:09:47,186

즉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왕 그러니까 왕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73

00:09:47,186 --> 00:09:58,664

그러면 단군이 왜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결국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그것은 내가 하늘의 손자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를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74

00:09:58,664 --> 00:10:06,939

나의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 고조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75

00:10:06,939 --> 00:10:18,651

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면서 단군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때 아마 이 신화,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웅의 이야기들이 재현이 되지 않았을까

76

00:10:18,651 --> 00:10:28,160

그래서 고조선의 사람들은 제사에서 단군 신화가 재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통치자인 단군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77

00:10:28,160 --> 00:10:37,003

신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인식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00:00:21,254 --> 00:00:33,600

앞 시간에서는 단군 신화가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서 고조선 건국 당시의 역사적 상황의 일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

00:00:33,600 --> 00:00:38,104

그러면 단군 신화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사라졌을까요?

3

00:00:38,104 --> 00:00:39,205

그렇지 않았죠.

4

00:00:39,205 --> 00:00:45,845

단군 신화는 13세기 말에 기록으로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00:00:45,845 --> 00:00:53,620

그렇다면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단군 신화가 어떻게 계승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6

00:00:53,620 --> 00:01:01,127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00:01:01,127 --> 00:01:13,740

단군 신화에서 가장 신화적인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곰과 호랑이 동물이 인간이 되겠다라고 하고 결국은 곰이 인간이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8

00:01:13,740 --> 00:01:25,418

앞서 단군 신화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곰과 호랑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동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9

00:01:25,418 --> 00:01:32,325

이러한 인식들이 신화에 반영이 돼서 단군 신화의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10

00:01:32,325 --> 00:01:43,770

근데 곰과 호랑이의 모습이 고조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등장하는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의 무덤 속 벽화라고 하는 그림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11

00:01:43,770 --> 00:01:49,809

현재 중국의 길림성 집안시에 위치한 각저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데요.

12

00:01:49,809 --> 00:01:53,379

이건 한 5세기 말에 만들어진 무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3

00:01:53,379 --> 00:02:00,787

이 그림에 여러 벽화들이 있는데 그 벽화 중에 유명한 것이 씨름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린 벽화가 있습니다.

14

00:02:00,787 --> 00:02:13,633

여기서 보시면 씨름하는 사람들 그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있고 그 나무 아래 쪽 내려가 보시면 나무에 기대어서 호랑이와 곰이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00:02:13,633 --> 00:02:22,442

이렇게 고구려는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한참 뒤에 건국된 나라이지만 고조선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곰과 호랑이의 신화 또는

16

00:02:22,442 --> 00:02:31,451

곰과 호랑이에 대한 인식들이 결국은 고구려에도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벽화 고분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17

00:02:31,451 --> 00:02:39,959

실제로 고조선이 차지했던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8

00:02:39,959 --> 00:02:48,902

나라가 건국되고 성장하기 때문에 아마 고조선의 문화를 잘 계승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19

00:02:48,902 --> 00:02:59,612

그리고 강화도에 가면 마니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요, 그 마니산 꼭대기에 가면 참성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20

00:02:59,612 --> 00:03:05,385

이 재단은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21

00:03:05,385 --> 00:03:16,629

자 이 전설이 전설로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등장하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가면 이 전설에 따라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이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22

00:03:16,629 --> 00:03:27,807

그래서 아마 참성단은 고려시대 때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때 먼저 만들어졌고 이 제사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

00:03:27,807 --> 00:03:34,414

자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단군이 세운 나라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쓰고 있었던 거죠.

24

00:03:34,414 --> 00:03:41,588

그런데 이후에 가면 1392년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또 세운다고 했죠.

25

00:03:41,588 --> 00:03:47,193

그래서 우리가 단군이 세운 이전의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6

00:03:47,193 --> 00:03:55,702

그러니까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군이 세운 고조선

27

00:03:55,702 --> 00:04:03,042

그 고조선의 역사를 계승하겠다,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라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죠.

28

00:04:03,042 --> 00:04:13,286

그래서 조선이라는 국명을 쓰다 보니 당연히 단군에 대한 계승, 고조선에 대한 계승 이런 인식들이 조선시대에도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

00:04:18,291 --> 00:04:23,563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단군 신화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0

00:04:23,563 --> 00:04:35,208

가장 먼저 떠올려볼 수 있는 건 매년 10월 3일이 되면 개천절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게 되는 거고 개천절은 국경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31

00:04:35,208 --> 00:04:39,245

국가가 경사스러운 날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죠.

32

00:04:39,245 --> 00:04:43,616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3

00:04:43,616 --> 00:04:52,025

그럼 10월 3일 개천절은 무엇을 하는 날이냐 바로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34

00:04:52,025 --> 00:04:59,098

사실 앞서 본 것처럼 고조선을 세운 해가 기원전 2333년이다.

35

00:04:59,098 --> 00:05:04,771

그 해를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로 인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36

00:05:04,771 --> 00:05:11,711

그와 마찬가지로 10월 3일에 그러면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느냐 그것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37

00:05:11,711 --> 00:05:16,716

그냥 10월 3일을 하나의 날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 거죠.

38

00:05:16,716 --> 00:05:26,292

그리고 이 날을 개천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개천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늘을 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39

00:05:26,292 --> 00:05:39,505

그래서 결국은 단군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것은 단순히 고조선이라는 나라 하나를 세웠다는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의미를 넘어서 우리 민족의 시작이다

40

00:05:39,505 --> 00:05:50,350

우리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확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인식이 담겨서 개천, 하늘을 열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41

00:05:50,350 --> 00:06:01,561

그래서 이러한 단군에 대한 인식이나 고조선이라는 인식들이 오늘날까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념일로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2

00:06:01,561 --> 00:06:10,503

그리고 또 하나 신화에서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이유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내세우게 됩니다.

43

00:06:10,503 --> 00:06:15,208

이거를 신화에서 보면 홍익인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44

00:06:15,208 --> 00:06:22,048

홍익이라는 말 자체가 널리 이롭게 하겠다 누구를, 인간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45

00:06:22,048 --> 00:06:23,549

굉장히 좋은 의미죠.

46

00:06:23,549 --> 00:06:31,991

그래서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기도 합니다.

47

00:06:31,991 --> 00:06:43,970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여러 학교에서도 각 학교의 건학 이념 또는 교육 이념에서도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48

00:06:43,970 --> 00:06:54,547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널리 인간을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이념이 바로 어디에서 단군 신화에서

49

00:06:54,547 --> 00:07:01,554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던 이유, 목표 그것들을 계승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50

00:07:01,554 --> 00:07:10,897

단군 신화는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 우리가 보는 기록에 남아있는 게 13세기 말 《삼국유사》, 《제왕운기》라고 했잖아요.

51

00:07:10,897 --> 00:07:16,068

그리고 그 13세기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시점이었던다고 했어요.

52

00:07:16,068 --> 00:07:22,442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단군 신화가 한 번 더 강조되는 시점을 보면 일제강점기입니다.

53

00:07:22,442 --> 00:07:25,945

그때도 한국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암흑기였던 거죠.

54

00:07:25,945 --> 00:07:36,722

그래서 한국이 어떤 위기를 겪거나 암흑기에 빠지거나 하면 그럴 때마다 이런 단군 신화 또는 고조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한다거나

55

00:07:36,722 --> 00:07:43,563

또는 국민들, 백성들을 통합하는 하나의 구심점으로서 종종 재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56

00:07:43,563 --> 00:07:46,265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는 거죠.

57

00:07:46,265 --> 00:07:55,475

때문에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고조선을 건국한 건국 신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8

00:07:55,475 --> 00:08:00,480

그러한 인식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59

00:08:00,480 --> 00:08:07,186

이제 1주차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

00:08:07,186 --> 00:08:12,124

우리가 1주차에서는 먼저 한국의 창세 신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61

00:08:12,124 --> 00:08:18,664

한국의 창세 신화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던 거죠.

62

00:08:18,664 --> 00:08:26,339

그리고 창세 신화의 특징은 구비 전승되었다 즉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었고

63

00:08:26,339 --> 00:08:36,716

특히 그 전승하는 주체가 누구였느냐 하면 무당 즉 무속 신앙에서 전승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창세 신화가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64

00:08:36,716 --> 00:08:46,692

그래서 최근에 와서야 창세 신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65

00:08:46,692 --> 00:08:52,398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단군 신화를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66

00:08:52,398 --> 00:08:59,405

창세 신화와 비교해서 보면 단군 신화는 일찍부터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그 기록이 전해져 왔던 거죠.

67

00:08:59,405 --> 00:09:04,277

자 그래서 단군 신화가 더 익숙한 신화이기도 한 거고요.

68

00:09:04,277 --> 00:09:09,715

13세기 말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지금 형태의 단군 신화로 기록이 되었다.

69

00:09:09,715 --> 00:09:14,320

그 내용들도 우리가 한 번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70

00:09:14,320 --> 00:09:25,331

그리고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고 그다음에 기록으로 남는 과정에서 결국은 다양한 한국 문화적인 요소가 하나의 상징으로 단군 신화의 표현이 되고 있었던 거고

71

00:09:25,331 --> 00:09:31,404

그 대표적인 것으로 곰과 호랑이라고 하는 동물들 그다음에 쑥과 마늘이라고 하는

72

00:09:31,404 --> 00:09:45,251

음식들 이런 것들도 단군 신화의 중요한 모티브인데 이런 것들이 한국 문화에서도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라라고 해서 한국 문화와 단군 신화의 관련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73

00:09:45,251 --> 00:09:57,063

그리고 단군 신화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이긴 하지만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도 고구려나 고려나 조선 이렇게 계승이 되어 왔고 그 계승되는 시점들을 살펴보면

74

00:09:57,063 --> 00:10:09,175

고구려에는 고분 벽화에 곰과 호랑의 모습이 그려지더라는 것 그다음에 고려와 조선에는 단군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참성단의 제사를 계속 계승해 갔다라는 것

75

00:10:09,175 --> 00:10:19,385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1392년에 세워진 조선이라는 나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이미 조선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76

00:10:19,385 --> 00:10:31,130

자 그리고 이러한 계승 의식들은 오늘날 개천절이라고 하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행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구요.

77

00:10:31,130 --> 00:10:40,239

그리고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목표로 삼았던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78

00:10:40,239 --> 00:10:46,278

오늘날 한국의 교육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9

00:10:46,278 --> 00:10:54,553

그래서 단군은 고조선이라는 국가의 시조를 넘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그다음에 민족적 기원

80

00:10:54,553 --> 00:11:02,128

그리고 우리 국민과 백성들을 통합하는 구심점 이런 역할들을 해왔다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1

00:11:02,128 --> 00:11:14,173

따라서 단군 신화 또는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2

00:11:14,173 --> 00:11:17,309

이상 1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